

# 청소년복지를 위한 교회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노 혁\*

- I. 문제제기
- II. 교회 청소년복지 사업의 방향
- III. 교회자원과 청소년복지
- IV. 교회자원의 활용방안
- V. 결 론

## I. 문제제기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한다.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할 수 없지만, 엄연히 사회 속의 제도와 시설로 존재하며 사회와 교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 더우기 오늘날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인간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고 바람직한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정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소외된 이웃과 불우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봉사를 하도록 기대받기 때문에,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의 폭은 더욱 넓어질 수 밖에 없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사회의 기대치를 고려해 볼 때, 선교를 통해 종교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교회는 당연히 사회에서 비중있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전래된지 100년이 넘어선 한국교회(개신교)는 세계 교회사의 모델로 선정될 만큼 엄청난 양과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신앙과 신학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는가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높으며, 이와 함께 한국교회가 종교로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같은 비판과 염려의 대부분은 교회의 인식한 사회봉사활동에서 비롯된다. 물론 교회가 전문적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인 사회봉사활동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회복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회의 소극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비난은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시기하는 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사회적 기여가 적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사회적 봉사활동에서 인색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체계적인 활동방법의 미숙과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 등과 같은 여러가지들을 들 수 있겠지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조명해야 할 것은 한국교회의 성장배경이다. 한국교회는 중국에서부터 도래되었지만, 교회 중흥의 동기를 부여한 것은 미국의 교회이다. 6.25 전쟁 이후 기독교신앙과 교리 전파에 앞서 황폐화된 한국사회에 봉사활동을 기치로 시작된 미국교회 선교사들의 활동은 교회안에서 보다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활동의 줄기는 한국인들의 기복신앙이라는 전통적인 종교 심성과 맞물리면서 교회의 부흥과 전도활동을 통한 교회의 성장과 팽창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고통받는 현실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이웃사랑의 정신을 봉사활동으로 구체화하기 보다 다가올 미래 즉,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기대와 그를 위한 기도가 교회의 중심역할이 되었다.

물론 교회사적으로나 한국교회의 성장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신앙의 성숙과 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한국인의 심성과 정신에 적응하여 선교하는 교회의 합리적인 전략과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마

치 '선경제개발 후사회발전' 방식의 국가적 발전 모델처럼 현실의 고통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보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담보로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교회가 낮은데로 부더 시작하지 않고 스스로의 사회적 위치와 위상에 대한 자리매김을 통해 지배적인 위치에 섰기 때문이다. 종교의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사회경제적으로 강력한 사회조직체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 또한 이러한 현상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낮은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비난의 대부분을 수용하더라도 그동안 교회에서 전개해온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절대빈곤 상황에 있었던 우리 현실에서 교회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갖지 못했던 정신적 여유를 제공받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학교교육 외에는 전무한 제도권 밖에서의 문화 향유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화의 장으로서 큰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교회의 양적 팽창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그 역할을 축소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별다른 문화 욕구 충족의 대안이 없는 상황 아래에서의 활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질적으로 체계화되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활동이 아니었다는 아쉬움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다른 어떤 부문 또는 계층에 비해서 기여가 컸다는 점만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다른 부문이나 계층에 비해 청소년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높게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존재유무를 떠나서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의 문화와 사회적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가치관 정립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종교적 심성의 제공이라는 면에서 교회는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최근들어 교회의 양적 성장에 반해서 청소년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이해는 과거의 그것에 비해 증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반면에 청소년은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풍요로운 세태 속에서 빠르게 문화적 주체로 자리잡고 있으며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한 집단으로 성장해 왔다. 이제는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복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생활과 문화를 뒤따라 가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교회에 돌릴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가 유·무형의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 속에 존재하는 기관이고, 또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인식과 실천적 행동의 표상이 될 것을 요구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그 역사가 깊지 않고 오랜 유교적 전통을 가진 국가체제 속에서 유입된 종교라는 면을 고려할 때, 미국 등 서구의 종교에서 수행하는 사회봉사와 달리 국가의 복지정책과 큰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복지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의 적극적 복지정책에 따라서 많은 소외된 이웃이 정책 대상으로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적 체계의 그물에서 벗

어난 욕구를 표현할 수 없거나 욕구조차 인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민간복지부문의 마지막 복지망 *welfare network* 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종교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의 복지적 역할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미래지향적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물질적 관심과 지원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신 및 영적 자원을 청소년들의 생활과 문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높은 관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면에서 사회정책적인 결정의 측면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복지는 민간부문의 복지적 지원이 더 요구되며,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은 교회의 주요한 봉사활동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청소년이라는 위상만으로도 복지적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 아래, 보편적 혜택으로서 청소년 복지를 위한 한 방편으로서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교회에서의 청소년복지가 효율성과 합리성을 갖기 위한 복지 지원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활동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복지를 위한 복지자원을 확충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교회의 사회봉사의 역할을 재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회의 신앙적 원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며, 청소년복지와 교회자원과의 역사적 관계와 실증적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교회 자원이 청소년복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신학적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개됨으로써 교회에 대해 잘못된

지식과 인식으로 교회의 역할에 대해 확대 또는 축소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오류를 어느정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검증되어 동의를 받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시각’만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이를 극복하려 한다. 또한 청소년복지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단순히 청소년을 위한 교회의 복지지원이라는 교회 사회복지의 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자원의 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안하는 이론적 배경을 도출하는데 기본 의의를 둔다.

## II. 교회 청소년복지 사업의 방향

### 1. 신학적 근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집약된다. 그런데 이 두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성서의 구절은 이웃사랑 즉, 사회에 대한 책임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에서 교회는 신앙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요체이다. 성서를 보면 교회는 다양한 어원적 개념을 갖고 있다. 교회에 대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카알’, ‘성전’ 등의 단어로 표현되며, 신약에서는 희랍어 ‘에클레시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의 부름을 받아 공적인 장소에 모인 시민의 모임을 의미한다. 특히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고린도전서 10:17, 12:27; 에베소서 1:23, 4:15)라고 하였는

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갖는 위치와 기능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구로서 주목할만 하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조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교회의 조직적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인 신자들이 모여서 한 구성원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선포kerygma’, ‘교육didake’, ‘성도의 교제koinonia’, ‘봉사diakonia와 선교mission’라는 네 가지 기능을 통해 신앙공동체를 이루어왔다(홍은해, 1989). 기능의 시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기능은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이지 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능이 아니지만, 기능이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기능에 비해 ‘봉사와 선교’는 교회가 교회 밖의 세상과 접촉하는 패러다임으로서, 사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의무이며 세상을 향한 그들의 생활 지침이다. 특히 헬라어로 ‘종이 된다’란 의미와 ‘종의 의무를 수행한다’란 의미로 사용되어 온 ‘디아코니아’*diakonia*는 종교적 봉사로서 제사장이라는 의식과 직무수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봉사의 의미도 포함한다. 세속적인 봉사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구약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수를 받지 않고 7년을 봉사한 경우(창 30:26-29)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제시가 구체화되면서 봉사의 개념은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봉사의 개념이 구약시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웃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라는 수평적인 관계의 활동으로 변화된 것이다(최순남, 1995). 자신의 죄로 인하지 않고 오직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죽음을 맞이한 ‘십자가의 헌신’이라는 상징에서 나타내듯이 수평적인 관계의 활동으로서 봉사는 예수의 행적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이웃에 대한 헌신으로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서정운(1991: 95)은 사회봉사 *social service*와 사회활동 *social action*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들고 있다. 정치적·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구조를 변혁시키려고 노력하는 활동인 사회활동은 사회참여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의 참여방법으로 선택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의 사회활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의 구조적 모순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회활동이라면, 사회봉사는 사회구성원 중에서 소외받는 이웃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사회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한편, 교회 밖에서도 교회의 '현재적' 모습을 현시해 주는 '잠재적' 교회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회의 사회봉사기능에서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는 것이 선교이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을 표현하는 사명의 중심이다. '교회는 말씀선포와 교육과 친교를 위해 모이고 세상을 향해 봉사와 선교를 하기 위하여 흠어져야만 한다'(김태원, 1987)는 표현에서 느낄 수 있듯이 교회활동에서 봉사는 선교와 독립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만 이해되곤 한다. 즉, 선교 *mission*를 전도 *evangelism*로서만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선교사에 의해 복음의 전파를 받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역사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해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선교신학이 널리 수용되면서 선교는 교파적인 전도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과 봉사활동이라는 인식이 파급되고 있다. 정

의와 평화, 인권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 곧 하나님 의 선교라는 인식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선교의 바른 개념은 어느 일면성이나 협의성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양면성과 포괄성에 기초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보냄' *missio*이라는 말에서 파생한 선교는 '전도와 봉사', '말씀의 전파와 실천'을 다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삼열, 1993).

이렇게 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수직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라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가 바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봉사'이다. 교회는 하느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인간에게 드리는 봉사를 통해 '참된' 예배와 참된 봉사는 결국 동질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것은 전 세계를 제도적으로 그리스도교화 한다는 뜻이 아니며, 또한 단순히 신자를 얻기 위한 전도도 아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사명은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산위의 도성'이라는 성격적 표현에서 잘 표명된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교회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누룩'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교회가 이 '누룩'의 의미를 통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교회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인간화의 작업에 외적 사명을 가진다는 말이다(송기득, 1994). 결국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은 사회봉사와 선교의 합일성에 있다. 선교는 '홀려넘침'이며 봉사는 그 선교의 과실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회봉사의 구체적 실현은 선교활동의 요체라 볼 수 있다.

교회의 사회복지적 역할에 대한 방법은 신학과

사회사업으로 나타난다. 신학과 사회사업의 연계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는 접근은 여러군데에서 논의되지만,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규범신학과 진보적 성향을 갖는 해방신학의 상호 불가피한 편협성과 과오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전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려는 것을 보여주는 '통합신학'은 사회복지의 실천적 행동인 사회사업과 상호협력적인 연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신학적 관점에서의 청소년복지는 선교와 봉사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연관될 수 밖에 없다. 더우기 청소년이 아동과 마찬가지로 잠재적 신앙자원이라 말할 수 있고 또한 교회의 교육적 사명과 역동적 활력을 일으키는데 유용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은 교회 또는 신학적 견지에서 주요한 선교 및 봉사의 대상인 동시에 교회의 하위문화를 이끌어가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2. 사회복지적 관점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책임을 철학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의 대상을 국민 전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따라 정책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변화한다.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현대국가에서 복지의 대상은 전체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민간부문 또는 종교적 이념이나 민주시민의 가치에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부터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교회는 사회의 제도와 정책적인 원조망을 통해서 충분한 복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복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라는 지위에 의해 사회복지의 대상 규정에서 이중성을 갖는다. 우리가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라 지칭할 때 그 대상은 이미 사회적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도 사회적인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보호받아야 할 아동, 노인, 장애인과는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즉, 청소년은 아동과는 달리 사회적 책임의 일부분 공유하고 간접적으로 사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노인처럼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지니지 못하며 또한 변하기 어려운 삶의 틀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보호를 필요로 하면서도 대중적인 처방보다는 예방적인 처방에 의한 복지지원이 더욱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복지라는 투자가 일정한 형태의 산출로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는 복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조건에 의해 복지혜택의 대상으로서 적절성과 적합성을 계산하기 보다는, 복지자원을 통해 사회의 장기적이며 바람직한 생산적 역량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대상을 위한 복지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복지는 사회의 소외된 계층으로서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원조와 함께 청소년이라는 연령 계층에 있는 모든 청소년을 복지적 대상으로 삼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복지의 이중적 장치는 두 가지 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기회균등의 원리를 제도적 또는 환경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지가 사회의 보조적 장치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심리사회적으로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에 복지수혜자로서 낙오된 청소년들에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같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동기와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교회의 청소년복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양면적 전략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더우기 교회가 청소년을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신앙인으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전략은 더욱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청소년들의 갈등과 고민 그리고 에너지를 포용하고 분출시키도록 다양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앙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그동안 교회는 소외된 이웃의 관점에서 불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전적·물질적 시혜를 통해 도움을 제공해 왔다. 이것은 앞으로도 교회가 실시하는 중요한 사회봉사의 한 방법이 될 것이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지원을 위해서 사회선교와 종교적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즉, 교회가 전체 청소년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사람 그리고 영적 자원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 III. 교회자원과 청소년복지

우리나라의 기독교복지사업에서 청소년을 위한 복지는 아동복지영역에서 출발한다. 1885년 시작된 스코틀랜드 부인의 이화학당과 1886년의 언더우드학당은 고아원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1898년 캠벨부인이 운영한 배화학당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아였다. 이어 1919년 한국인에 의해서 처음 고아구제사업이 시작되어 윤치호, 오금선 등이 ‘경성고아구제회’를 설립하였다(백락준, 1970).

이처럼 초기의 기독교 복지사업은 고아원 등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였고, 차츰 불우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와 아직도 많은 수의 보육원과 아동복지시설을 기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명문사학 중 기독교정신을 토대로 설립한 학교가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초기의 기독교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과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이며, 이 점에서 오늘날 교회 청소년복지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복지사업은 지교회의 성장과 함께 각 지교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청소년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비록 가시적이지 않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이 중 특이한 것은 문화적 향유의 기회가 거의 없는 사회적 상황에서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문학의 밤’, ‘친구 초청의 밤’과 같은 제도적인 문화양태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시한다. 또한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 일정한 체계 안에서 또래 및 이성 청소년들 간의 인간관계 형성의 장field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이같은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교회가 청소년문화형성에 의도적인 관심을 가지진 않았지만,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인생관 및 가치관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정신적 사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복지의 한 부분을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경

제 발전과 함께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촉하고 모방하며 나아가 창조함으로써 교회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갔으며, 점차 교회에서 제공하는 문화적인 매력은 상실되고 있다.

그러면 청소년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해 다음의 글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교회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신학에서 ‘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성장 발달’은 ‘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성장발달 과정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청소년에게 직접 질문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학은 청소년들을 대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느냐의 문제를 내용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박종삼, 1985).”

교회자원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교회자원은 다른 사회적 자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교회자원을 청소년복지에 활용하는데 사회적 자원이 갖는 효율적 배분의 문제 외의 다른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대답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말로 교회자원은 다른 사회자원과 동일한가?

한 연구 결과(김만두, 1995)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에 관한 설문에서 목회자의 71.6%가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또한 이들 중 60.2%가 사회봉사활동의 목적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교회 전체의 사회봉사활동의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으로 “총 예산의 증감에 따라서”는 32.6%이고, “사회봉사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64.8%로 나타나 대다수의 교회가 교회의 예산에 일정비율을 봉사활

동에산으로 책정하기 보다는 사회봉사의 필요에 따라서 재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결과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즉, 목회자들의 대다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봉사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의 목적이 의로운 사람들의 신앙에 기초한 사랑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봉사의 표현이기 보다는 전도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선포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교와 봉사는 무엇을 통해, 무엇을 성립시키는 양립적인 기능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인식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수용이 쉽지 않다. 이러한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교회가 아직도 사회봉사활동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시혜적 자선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교회는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해 개인의 문제를 종교적 자비로 보살피겠다는 전통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봉사를 교회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교회가 가진 여력을 표현함으로써 교회의 자존감을 높이는 의례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둘째는 교회의 봉사활동을 물리적 또는 금전적 자원으로만 한정하여 인식하는 데 있다. 흔히 교회 헌금의 지출내역을 근거로 교회봉사활동의 인색함을 비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사회봉사비에 대한 헌금의 지출비율이 봉사활동의 척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예산 중 사회봉사비의 지출이 봉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만으로 교회의 봉사활동

을 측정할 수는 없다. 교회는 물리적 자원 이외에 인적 자원과 시설과 정신 및 영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는 지교회의 폐쇄적 태도이다. '우리 교회'라는 집단이기주의 의식은 교단과 교파간 뿐만 아니라 교회사이에서도 배타성을 갖는 병폐가 되고 있다. 따라서 봉사활동도 때때로 사랑과 신앙의 표현이 아닌 교회공동체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봉사의 체계와 효율성에 문제를 일으켜서 복지대상의 중복적 시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칫 마지막 복지망 *welfare network*인 교회로 부터 도움받지 못하는 이웃이 발생하는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회자원을 복지자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변수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개신교 교단의 신앙노선이 복지적인 태도나 행동의 성향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나이다. 신학적으로는 개인 구원이나 사회 구원이나의 입장에 따라서 교회가 사회복지에 관여하는 유형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단의 신앙노선이 보수적이든 지 진보적 신앙을 갖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다양한 복지참여 행동 양태는 사회복지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교회나 교인들의 신앙노선과 복지문제의 종류를 고려하여 조정하면 모든 종교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박종삼, 1988). 그렇지만 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복지기관이 아닌 교회에게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봉사활동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교회는 봉사가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와 하나님께의 봉사라는 신앙적 측면을 지향해야 하는 본질적 책임을 갖고 있다.

교회에서의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복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교회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회자원의 적용 대상면에서

보면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활동이 가난한 아동이나 불우한 노인 그리고 장애자를 위한 복지활동 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교회자원 활용의 목적면에서 볼 때 청소년복지가 교회의 선교활동의 목적적 도구로만 활용된다면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교회자원의 활용 방법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의 전문적 기술 및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교회복지 지원을 시도하려는 의도와 노력은 '교회'라는 종교적 성향으로 인해 실제적인 효력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복지에 있어 교회가 청소년문제와 비행의 전문적인 해결과 치료에 관심을 둔다면 실패할 확율이 높을 것인데, 그 이유는 종교적 범위 내에서 문제를 다룸으로써 상당한 윤리와 가치적 제한을 갖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청소년복지 지원은 치료적 관점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자원의 활용에서 높은 효율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고려는 어쩌면 교회의 고유 활동의 한 영역인 선교와 무관한 듯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청소년복지를 위한 교회자원의 활용은 교회의 선교 전략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자원의 복지화는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심성을 키우는데 밀려들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고려하면 교회 청소년복지를 위한 자원의 면에서 다른 복지시설이 갖는 자원과 차별화되는 데 이것이 바로 종교적 특성에서 나온 영적 자원이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면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해 교회내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 첫째, 일반적으로 교

회자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리적·금전적 자원 뿐만 아니라 인적, 시설적, 영적 자원을 포함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복지적 대상으로 전 청소년을 고려할 때, 청소년복지에서 교회자원은 이들 자원 중 시설과 사람 그리고 영적 자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개발해야 한다. 즉, 청소년이 교육의 대상이며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며 자아를 형성하고 확고히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할 수 있는 각계 각층의 사람과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은 소외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복지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를 위한 교회자원의 활용방안은 교회사회사업의 범주 내에서 교회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나 필요에 적합한 다양한 예방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 IV. 교회자원의 활용방안

앞서 청소년복지를 위한 교회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그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해왔다. 논의의 결과, 청소년복지를 위한 교회자원은 청소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직화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인적, 시설적, 영적 자원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내용은 무엇이며, 그에 적합한 인적, 시설적, 영적 자원은 어떻게 조직하고 활용되어야 하는가?

우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의 보편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현실적으로 교회의 자원 중 활용이 가

능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상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자원이 복지자원화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복지에 동원될 수 있고 조직화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복지와 교회자원의 연계를 생각할 때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의 물질적, 재정적 자원을 통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논의하는 교회자원의 활용과는 거리가 있다.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자원이라는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욕구와 자원의 결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한 연결에 불과하다. 적절한 자원의 활용은 욕구에 대응하며 욕구를 가진 대상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이런 면에서 보면 청소년복지를 위한 교회의 자원은 청소년들의 활동특성과 성장단계에서의 적절한 과업성취를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과 물질적 자원 이외에도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시설과 인적 및 영적 자원은 다른 자원들 이상으로 청소년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자원의 활용은 보편적인 청소년복지를 지향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어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교회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그 범위는 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의 위치와 수준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청소년문화 및 사회교육과 인간관계를 훈련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회가 청소년복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과 그것을 이용한 활용방안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설 자원 : 교회의 시설을 청소년에게 개방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쉬운 복지적 노력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일정규모 이상의 교회들은 본당이라 불리우는 성전 외에 교육관 등의 명칭으로 시설물들을 보유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시설이 문화적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개방된다면 현재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청소년전용공간의 확보를 요구하는 많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설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청소년 복지 사업은 다음과 같은 영역이 가능할 것이다.

- 영상 및 음악감상 공간
- 문학작품 분석교실 및 도서실
- 연극활동의 공간

2. 인적 자원 : 교회는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직 종사자로부터 단순 노무직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신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인적 자원만큼 강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은 찾기 힘들 것이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성장단계에서 과업을 성취하는데 큰 도움체계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청소년도 유용한 인적 자원이 된다. 즉, 신앙을 가진 청소년 스스로가 복지의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한편 비신앙인이나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또래 복지자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에 적합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개발
- 시간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교회의 잠재적 자원의 개발

3. 조직 자원 : 교회에는 제직회, 장로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청소년부, 학생부, 구역회 등 많은 조직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자원은 집단성원간의 관계와 사회적 역할을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복지자원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 청소년상담 및 또래상담
-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 실시

4. 영적 자원 : 영적 자원은 그 자체로는 가치적이지 않지만 교회가 선교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복지를 위해 활용해야 할 가장 핵심되는 자원이다. 교회의 모든 자원은 교회다운 자원이 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종교적 기능과 역할 그리고 위치를 상실하지 않는 가운데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동일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줄지라도 교회는 종교적 전지와 가치를 준수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이러한 가치와 영적 힘을 현재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재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영적 자원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명상의 공간 지원
- 삶과 죽음의 교실 지원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에서 1992년 산하 2,008교회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과반수가 조금 넘는 1,002개의 교회가 1가지 이상의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시설의 용도를 보면 37.7%가 교회의 교육전용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회봉사목적의 시설은 15%로 되어 있다.

- 철학과 신학의 이해
- 직업의 선택과 사회적 소명
- 사회와 경제 그리고 종교

이같은 자원활용은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일부 교회에서는 청소년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복지를 단순한 물질적 혜택의 제공으로 인식하는 대부분의 교회의 인식 때문에 시설과 사람 그리고 조직 및 영적 자원이 가공되어 제공되지 못하며 뜻있는 교회의 단순한 ‘열린공간’으로서의 역할로만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복지를 위한 교회자원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조직하는 것 못지 않게 기존의 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특히 청소년복지를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나 성취해야 할 과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조직으로서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자원을 교회 스스로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수준에 적합하게 조직하고 가공한다면 교회가 청소년복지를 통해서 스스로 활발한 사회적 활동과 봉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발전된 선교적 전략의 한 방안으로서 사회복지의 기술적 영역과 호흡을 일치시킬 수 있다.

결국 청소년복지를 위한 교회자원의 활용은 ‘있는’ 자원을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복지활동에 적합하게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V. 결 론

교회 또한 급변하는 사회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교회는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선교 전략과 사회봉사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선교의 방법과 봉사활동은 하나님의 봉사과 이웃의 사랑이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간 교회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교회가 사회봉사에 인색하고 교회의 외적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난을 여전히 받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의 결벽적인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요구와 완벽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을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적 압력의 수용 등과 같은 교회의 외부적인 요인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교회의 세련되지 못한 사회선교와 봉사활동 방법에 대해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직접적인 구호 못지않게 교육에 많은 역점을 두어왔다. 비록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키려는 종교적 의도를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학교 외적인 교육과 생활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오랜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 사회의 문화와 교육적 토양을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대안부재의 상황에서 누려왔던 교육·문화·오락 및 사상적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상당부분 자연스럽게 포기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교회도 믿음과 사랑의 합리적 실천과 사회 참여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나 사회 모두 교회의 재정 및 물질적 자원에 대한 복지자원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교회는 교회 스스로 종교기관으로서의 역할만으로 규정하려는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는 교회에 대해 보다

많은 양의 재정과 물질을 사회를 향해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같은 인식으로 인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나 사회가 상대에 대해 갖고 있는 역할기대만을 강조하며 그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적지 않은 실망의 빛을 내보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상호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좁치럼 넘어서기 힘든 한계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회와 사회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쉽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회나 사회 모두 서로를 외면할 수는 없다. 특히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재정과 물질적 자원 이외의 자원을 통해 교회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더우기 청소년이 교회의 입장에서도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신앙의 보고라는 면에서 볼 때 재정과 물질적 자원 외적

자원의 활용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 중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가능성이 큰 것은 시설과 사람 그리고 조직 및 영적 자원이다. 이들 자원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업화된 청소년문화를 정화하고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한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교회는 재정과 물질적 자원의 개발 못지 않게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시설과 조직, 사람 그리고 교회단이 제시할 수 있는 독특한 영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제대로 조직한다면 공공부문과 다른 민간부문이 현실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청소년복지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청소년복지를 위한 교회 자원의 개발 방향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만두. 1995. “현대교회와 사회복지서비스” 「한국교회의 미래와 평신도」, 대한기독교서회.
- 김만두. 1993.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제.
- 김태원. 1987. 교회의 교육적 사명, 종로서적.
- 민경배. 1991. “한국교회에 있어서 사회선교”, 유의웅(편),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 대한성서공회. 1993. 성경전서 : 표준새번역, 대한성서공회.
- 박영호. 1979. 기독교와 사회사업, 예수교문서선교회.
- 박종삼. 1985. “청소년 사회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부 청소년문제세미나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사회부.
- 박종삼. 1988. 한국의 개신교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 11호」.
- 백락준. 1970. 한국의 선교역사 - 1832~1910 -, 연세대학교 출판사.
- 서정운. 1991. “사회선교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 유의웅(편),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 성갑식. 1984. 교회 사회 선교, 대한기독교출판사.
- 송기득. 1994. 신학개론, 종로서적.
- 유의웅(편). 1991.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대한예

- 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 이삼열. 1993. “한국 기독교 사회봉사의 실천과제”, 전주한일신학교 기독교종합연구원, 「한국 기독교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개교 70주년 기독교사회복지 학술심포지움 발표자료.
- 이삼열(편). 1992.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한울.
- 이종성. 1983. 조직신학, 기독교방송.
- 전호진. 1989. 선교학, 개혁주의신행협회.
- 최순남. 1995.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교회의 역할” 「한신대 한신사회복지 연구 제 3호」, 한신대.
- 홍은혜. 1989. “교회의 성장과 사회봉사와의 관계”, 장로회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Friedlander, W. A and Robert, Z. A.. 1980.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Cliffenglwood, N. J. : Prentice-Hall, Inc.
- Garland Diana R.(ed). 1992. Church Social Work, 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s in Social Work.
- Loewenberg, Frank M.. 1988. Religion and Social Work Practice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Columbia University Press.